

키보드 소리 속 긴장감...청년 예비 명장들의 두뇌싸움

광주 기능경기대회 현장 가보니...

모바일 앱·로보틱스 등 ICT 분야 경쟁 제한 시간 내 수행...현장 몰입도 최고 지역 대표 선수 선발...8월 전국대회 출전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작업한 결과물은 꼭 저장 후 종료해 주길 바랍니다.”

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이곳에서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광주 기능경기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교실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장비 작동음이 뒤섞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학교에서는 모바일로보틱스, 모바일 앱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총 5개 직종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며 현장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각 교실마다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끌어올린 채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 중 1층 금봉관에서는 모바일로보틱스 경기



8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지역 숙련기술인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광주 기능경기대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지역 대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바일 앱개발(왼쪽)과 모바일로보틱스 종목에 참가한 학생 모습.

가 한창이었다.

선수들은 바다에 설치된 코스를 따라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반복 테스트를 이어갔다. 작은 오차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집중이 동시에 묻어났다. 로봇이 경로를 벗어나거나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선수들은 곧바로 코드를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갔다.

옆 건물에서 열린 모바일 앱개발 경기장에서

도 열기가 뜨거웠다.

총 6명의 선수가 참여해 제한된 시간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겨뤘다.

모바일 앱개발 종목은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인 설계와 함께 기능 구현 능력,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분야다. 선수들은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오류를 수정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데 집중

했다.

현장을 담당할 임속자 심사장은 “학생들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 몰입도가 높다”며 “3일간 이어진 노력과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 기능인재를 발굴하고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10

일까지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1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용접, 보석가공 등 총 33개 직종에 278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자의 분야에서 갈고닦은 기술을 겨루고 있다.

또한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오는 8월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다. /안태호기자

aT, 공공데이터 제공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노력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5년부터 AI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의 지표가 신설되고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aT는 이번 평가에서 97.04점을 기록하며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67.6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 92.5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정 ‘우수’ 달성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농식품 데이터의 적극 개방하고 농수산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다가오는 AI 시대에 적극 앞장서, 농어민·농어촌(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한국은행,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5월 예심·7월 지역예선·8월 결선

한국은행이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예심, 지역예선대회, 전국결선

대회를 거치는 ‘2026년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예심은 서면 방식(보고서 제출,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은 대면 방식(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참가신청과 예심자료 제출은 5월22일부터 27일까지다. 예심 결과는 6월18일-19일에 발표된다.

지역예선대회는 7월13일 또는 14일 본부(서

울) 및 지역본부(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경기)가 주관해 개최한다. 예심 결과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통합 개최 가능하다.

전국결선대회는 8월11일(잠정) 한국은행 본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팀을 구성해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경제교육-프로그램 안내-통화정책 경시대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만기자

중진공, 제조AI·스마트공장 장기심화 교육생 모집

스마트공장 도입 중기 대상...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조AI·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심화과정은 중진공의 대표적인 스마트제조 연수과정 중 하나로 총 5개월(180시간) 동안 스마트공장 직무교육(36시간)과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144시간)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 연수과정은 정부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정책에 맞춰 제조AI 전환(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모집 분야는 지능형공정·예측, AI로봇·자동화, AI탄소중립, 자

율주제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기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양한 직무 간 협업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2인 이상의 팀 단위로 신청을 받아 총 62개 프로젝트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6급 3특) 전략 산업을 영위하거나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 1단계 이상인 기업 등 제조AI 도입과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https://ssup.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안태호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광고문의 : 062)650-2099